

# 해방직후 북한 무력양성기관의 조직과 운영

김 선 호\*

1. 머리말
2. 평양학원의 조직과 운영
3.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의 조직과 운영
4. 보안간부훈련소의 조직과 운영
5. 맺음말

## 1. 머리말

해방직후 북한지역에는 다양한 무장세력이 창설되었다. 이 세력들은 북한지역의 정세변화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무력기관으로 발전되었고, 상호 재편·통합되었다. 그후 이 무력기관들은 조선인민군 각 병종의 모체가 되었다. 즉, 해방직후 북한지역 무력기관은 조선인민군 형성의 출발점이었다. 북한지역의 정치세력과 소련군에게 치안유지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이들은 치안유지를 위해 난립하던 보안단체들을 재편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무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을 창설했다. 이 글은 조선인민군의 전사(前史)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수료

로서 해방직후 북한지역에서 창설된 무력양성기관을 연구한 것이다. '무력양성기관'이란 해방직후 북한에서 군관과 병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무력양성기관인 평양학원,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보안간부훈련소를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지역의 무력양성기관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장준익은 일찍이 인민군 창군과정의 일환으로 북한지역 무력양성기관의 조직과 재편과정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그는 군 자료와 구술자료를 폭넓게 활용해 보안대, 철도경비대, 보안간부훈련소, 평양학원,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의 체계를 밝혀냈다.<sup>1)</sup> 백학순은 노획문서와 미군자료를 바탕으로 해방직후 북한 보안조직의 창설과정과 분화과정을 사실적으로 연구하였다.<sup>2)</sup> 김광운은 노획문서와 러시아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지역 무력양성기관의 조직과 재편과정을 사실적으로 밝혀냈다. 특히 '항일유격대집단'이 처음부터 자파중심의 군대를 창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했다.<sup>3)</sup> 김광수는 러시아의 자료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정규군의 창설배경과 창설과정에 대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그는 북한 정규군의 실질적 출발은 보안간부훈련대대부와 사단규모의 보안훈련소 창설에서 시작되었고, 1946년 후반 정규군 창설추진은 김일성의 의지보다는 소련의 대한정책 변화가 중요요인이었다고 보았다.<sup>4)</sup> 한편, 한용원은 해방직후 인민군의 간부양성과정과 그 특징을 연구하였다. 그는 인민군 간부양성의 특징을 간부들의 공산주의화, '항일빨치산파'의 헤게모니 장악,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혁명적 무장력의 지휘관 육성, 정치적 이유에 따른 직업군인

1)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2) Paik, Hak Soon,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 Thesis(Ph.D.)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chapters 6. 본문과 각주의 모든 (~)표기가 제 컴퓨터에서는 잘못표기된 것으로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주시길.

3) 김광운, 「전쟁 이전 북한 인민군의 창설과정」,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3~53쪽.

4)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한울아카데미, 2006, 63~78쪽.

의 성쇠로 보았다.<sup>5)</sup>

이상의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지역 무력양성기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무력양성기관의 창설시기, 조직구성, 조직개편, 주요간부 등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이 아직도 명확히 구명(究明)되지 않았다. 또한, 각 무력양성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일부만 밝혀져 있다. 이 글은 해방직후 1947년 중반까지 북한지역 무력양성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해 역사사실적으로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대상시기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중반까지이다. 특히 해방직후 창설된 무력양성기관이 창설당시의 명칭으로 활동한 시기만 다루었다. 이 글에서 주로 활용한 자료는 미군노획문서이다. 미군노획문서는 무력양성기관이 조직·운영될 당대의 자료로서 추후 침식된 북한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주로 북한 무력양성기관에서 생산한 내부자료와 인민군 간부이력서를 활용하였다. 이 글은 각 무력양성기관이 향후 어떤 과정을 거쳐 조선인민군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는 향후연구과제로 남긴다.

## 2. 평양학원의 조직과 운영

해방직후 북한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간부양성기관이 창설되었다. 1946년 6월 현재 중앙에서 이미 설립한 학교만 해도 ‘중앙정치간부학교’, ‘보안간부학교’ 등 45개가 넘었다.<sup>6)</sup> 해방직후 치안유지와 경비임무에 따라 각종 보안기구가 창설되자 보안간부의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보안간부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관들을 설립했다.

5) 한용원, 『남북한의 창군』, 오름, 2008, 273~298쪽.

6) NARA, RG 242, SA 2009, Box 1, Item 166(金日成,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委員會結成에 對한 報告」, 1946.1. 北朝鮮勞動黨中央本部 宣傳煽動部, 『(黨教育綱用參考資料) 金日成將軍重要論文集 : 民主朝鮮自主獨立의 길』, 勞動出版社, 1947.3.10).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여 창설한 것은 평양학원이다. 평양학원은 “향후 건설될 정규군대의 핵심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규정되었다. 즉, 향후 정규군 창설을 대비한 핵심기관 양성기관이었다. 평양학원은 1945년 11월 17일부터 창설준비에 들어갔고,<sup>7)</sup> 1946년 1월 3일 정식으로 개교하였다.<sup>8)</sup> 창설된 장소는 일제강점기 소화전공회사가 있던 곳으로, 지금까지 평남 진남포 동쪽의 도학리로 알려져 왔다.<sup>9)</sup> 평양학원이 진남포에 있었던 것은 맞다.<sup>10)</sup> 그런데, ‘도학리’라는 지명은 1950년 행정구역 개편때 생겨난 것이다.<sup>11)</sup> 필자가 확인한 결과, 해방직후 평양학원이 설립된 실제 행정구역명은 ‘평안남도 진남포시 지장리(智藏里)’였다.<sup>12)</sup>

평양학원은 창설당시 정치반과 군사반으로 구성되었다.<sup>13)</sup> 평양학원의 초대 원장은 김책(金策, 항일연군파)이 맡았고, 김일성은 명예원장으로 추대되었다.<sup>14)</sup> 부원장은 기석복(奇石福, 소련계), 참모장은 김동수(金東洙, 소련계)가 맡았으며, 제2대 원장은 안길(安吉, 항일연군파)이 취임하였다.<sup>15)</sup> 평양학원의 창설을 주도한 사람은 김책<sup>16)</sup>, 안길, 정치부교장 조정철(趙正

7) 『김일성전집』 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76~277쪽. 『김일성전집』에는 기존에 간행된 『김일성선집』·『김일성저작선집』·『김일성저작집』에 없는 김일성의 연설과 명령이 새로 추가되었다. 처음 공개된 자료들은 『김일성전집』을 활용하였다.

8)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북한관계사료집』 7권, 군사편찬위원회, 1989, 588쪽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해방과 건군』,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675쪽

10)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金貞珣, 『幹部履歷書』). 김정우의 이력서에 “平南 鎮南浦 平壤學院 入學함”이라고 적혀 있다. 이 간부이력서들은 1인당 5~10쪽 분량으로 작성되었고, Item 110에는 80여 명의 간부이력서가 특별한 순서없이 편철되어 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쪽수를 표기할 수 없어 간부이력서의 성명을 병기하였다.

11) 북한지역정보넷홈페이지(<http://cybernk.net>).

12)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安慶律, 『幹部履歷書』);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박승규, 『幹部履歷書』). 안경률의 이력서에 “平安南道 南浦市 智藏里 平壤學院에서 工夫함”이라고 적혀있다. 박승규의 경력란에도 평양학원의 위치가 ‘남포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방직후 실제 시(市)명칭은 ‘진남포시’가 맞다.

13) 『正路』, 1946.1.15.

14) 『김일성전집』 2권, 282~283쪽.

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75: 677쪽.

16) 태병렬·오찬복, 『태양을 모시고 60년』, 금성청년출판사, 1997, 64쪽. 태병렬과 오찬복은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김일성과 함께 유격투쟁을 한 인물들이다. 해방직후 태병렬과

哲, 항일연군파), 교무주임 심태산(沈泰山, 항일연군파), 김증동(金曾東, 항일연군파) 등이었다.<sup>17)</sup> 또한, 김일성은 자신의 부관 주도일도 평양학원의 지휘성원으로 파견하였다.<sup>18)</sup> 1947년 1월 15일 현재 평양학원 군사 부(副)원장은 심태산이 맡고 있었다.<sup>19)</sup> 1946년 3월에는 평양학원에 항공반이 신설되었다.<sup>20)</sup> 1946년 3월 17일 평양학원 항공반은 민간단체였던 신의주항공대를 흡수하고 항공인력 양성에 들어갔다.<sup>21)</sup> 이로써 평양학원은 3개 반으로 증설되었다.

평양학원의 학생들은 각 도당에 파견된 항일연군파에 의해 학생모집요강에 따라 선발되었다. 이들은 주로 “혁명가유자녀들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자녀들과 청년학교 학생들”이었다.<sup>22)</sup> 학생들은 3~4개월의 단기교육과정을 밟았다. 교관들은 주로 소련계 고려인들이 임명되었다. 교육은 군사훈련보다 정치학, 러시아어, 공산당사 등의 정치강의에 치중하였다.<sup>23)</sup> 평양학원의 군사훈련은 초보적 수준이었다.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각개교련(各個敎鍊)을 가르쳤다. 각개교련에서는 ‘차렷·싸·번호’ 등의 구령법에 입각해 소총교련, 경기관총교련, 기관총교련을 실시했다.<sup>24)</sup> 학생들에게는 아직까지 군복이 지급되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은 토목바지저고리나 고무신, 일본군화를 신은 채 제식훈련을 받았다.<sup>25)</sup> 평양

---

오찬복은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지휘성원으로 활동했으며, 태병렬은 1949년 10월부터 개전직전까지 제1민청훈련소 제3지소장을 역임했다. 두 사람은 부부로, 이 책은 김일성과 함께 활동했던 경험을 정리한 회고록이다. 이 책에는 인민군 창설과정에서 겪은 개인적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다.

17)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 선인, 2003, 474쪽.

18) 태병렬·오찬복, 앞의 책, 64쪽.

19)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26(無線中隊 第三小隊長 朴英根, 『各個敎鍊號令』, 1947.1.15).

20) 『조선통사』 하권, 사회과학출판사, 1987, 354쪽.

21) 『조선통사』 하권, 675쪽.

22) 태병렬·오찬복, 앞의 책, 65쪽.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75쪽.

24)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26(無線中隊 第三小隊長 朴英根, 『各個敎鍊號令』, 1947.1.15).

25) 태병렬·오찬복, 앞의 책, 67~68쪽.

학원 내에는 훈련용 활주로나 있었고, 훈련용연습기로는 일본제 95식 고급 연습기 3대가 있었다. 그러나 훈련 중 비행기의 노후와 추락사고로 인해 비행훈련은 중지되었다. 그 후에는 이론교육에 치중하게 되면서 항공반 1기생의 졸업이 늦어지기도 하였다.<sup>26)</sup>

평양학원의 창설과 학생선발은 철저히 항일연군과가 주도했다. 소련계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주로 학원운영과 훈련실무를 담당했다. 평양학원의 원장도 계속해서 항일연군과가 차지했으며, 다른 계열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는 항일연군과가 평양학원을 처음부터 자과의 확대재생산기반으로 기획했음을 보여준다.

평양학원 제1기생은 1946년 1월 10일까지 모집되었다.<sup>27)</sup> 이들은 약 3개월 반 동안의 훈련과정을 거쳐 1946년 4월 29일 졸업하였다.<sup>28)</sup> 평양학원 제1기생은 총 600명이었다.<sup>29)</sup> 평양학원 제2기생은 1946년 4월 중순부터 모집했다고 알려져 있다.<sup>30)</sup> 그러나 정확한 입학·졸업시기는 알 수 없었다. 필자는 평양학원 졸업생들의 이력서를 통해 제2기생의 입학·졸업시기를 확인하였다. 박승규는 1946년 5월에 평양학원에 입학해 9월에 졸업하였다.<sup>31)</sup> 김정우는 1946년 5월 1일 평양학원에 입학해 9월 16일 졸업했다.<sup>32)</sup> 두 사람의 입학시기는 제2기생의 모집시기와도 비슷하다. 결국, 제2기생들은 1946년 5월 1일에 입학해 약 4개월 반의 교육과정을 거쳐 9월 16일에 졸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평양학원 입학생들의 경력과 졸업 후 행적은 일부만 밝혀져 있다. 평양학원 제1기생으로는 김일성의 친인척들이 입학했다. 김일성의 조카(삼촌 김형록의 아들) 김원주와 그의 부인, 할머니 리보익의 조카 아들 김병렬,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98쪽.

27) 『正路』, 1946.1.18.

28) 『김일성전집』 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348쪽.

29) 김광운, 앞의 책, 473쪽.

30) 『正路』, 1946.1.18.

31)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박승규, 『幹部履歷書』).

32)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金貞珩, 『幹部履歷書』).

외삼촌 강용석의 아들이 제1기생으로 입학했다.<sup>33)</sup> 또한 전쟁 당시 조선로동당 전남도당 위원장 박영발, 전북도당 위원장 방준표도 평양학원 출신이다.<sup>34)</sup>

필자는 노획문서에서 평양학원 졸업생의 이력서를 발견했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평양학원 학생들의 경력과 행적을 살펴보자. 박승규는 1927년 평남 맹산군에서 태어났다. 출신성분은 빈농이며, 일제강점기에는 소작농이었다. 해방직후 평남 맹산군에서 치안대 대원과 리농민위원회 간부, 맹산군 정치학원 학생, 맹산군 보안서 경비대 대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1946년 5월 2일 '평양학원 군사과'에 입학해 1946년 9월 7일 졸업했다. 졸업직후 9월 26일 평남 개천에 있는 보안간부훈련소에 입소해 11월 7일 퇴소했다. 1946년 11월 8일 제1사단 3연대 3대대 9중대 중기소대장으로 발령받았고, 1949년 5월 13일 중기중대장으로 진급했다.<sup>35)</sup>

길치건은 1927년 평북 영변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평북 영변군 소림면 소림공립보통학교와 영변철공국민학교 상등과를 졸업했다. 1944년 3월부터 1946년 4월까지 집에서 농업에 종사했다. 해방직후 그는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였다. 1946년 5월 1일 평양학원에 입학해 1946년 9월에 졸업했다. 졸업직후 정주교도대에 배치받아 분대장으로 활동했다. 1946년 10월에 개천에 있던 보안간부훈련소에 배치되었다. 그 후 인민군 제1사단 3연대 2대대 5중대 중기소대장으로 발령받았다.<sup>36)</sup>

김정우는 1925년 평북 철산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평북 철산군 서림면소학교 6년 과정을 졸업했다. 1940년 8월 10일부터 1945년 8월 1일까지 만주 암성식료주식회사에서 근무했다. 1945년 8월 1일 회사를 퇴직한 후 해방이 되자 9월 1일 귀국했다. 1946년 1월 6일 평북 신의주 평북학원에 입학해 2월 14일 졸업했다. 3월 26일 조선공산당 평북 철산군당부 선전부에 입당

33) 태병렬·오찬복, 앞의 책, 66쪽.

34) 김광운, 앞의 책, 476쪽.

35)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박승규, 『幹部履歷書』).

36)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吉致健, 『幹部履歷書』).

했다. 1946년 5월 1일 평양학원에 입학해 9월 16일 수료하였다. 수료직후 9월 28일 “평남안주보안간부학교(평남 안주직속4대대) 제1중대”에 배치되었다. 1947년 4월 4일 평북 강계 제3연대 제2대대 중기중대 3소대장으로 발령받아 1949년까지 복무했다.<sup>37)</sup>

이들은 모두 평양학원 제2기생들이다. 이력서에 따르면, 이들은 약 20~22세였다. 학력은 무학부터 국졸 수준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해방직후 지방에 설치된 정치학원을 다녔거나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이는 각 지방에 파견된 항일연군과가 지방에서 학생들을 선발해 추천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이들은 평양학원에서 3~4개월 동안 단기교육을 받았다. 졸업생들은 평양학원을 졸업한 직후 보안간부훈련소나 지방에 있던 교도대대·보안간부학교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분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학원은 군사훈련보다 정치학습에 치중하였으므로 이들을 대원양성기관에 보내 군사훈련 경험을 쌓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졸업생들은 이곳에서 짧게는 1개월 12일, 길게는 6개월 동안 근무한 후 인민군부대의 소대장으로 발령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전쟁 직전까지 인민군부대에서 중대장급으로 진급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평양학원 졸업생들은 졸업후 당간부, 보안대간부, 경비대간부, 군관양성기관의 교관으로도 배치되었다.<sup>38)</sup> 졸업생중 일부는 수상보안대의 간부로 임명되었다.<sup>39)</sup>

평양학원은 1946년 6·7월을 기점으로 대폭 개편된다. 평양학원 정치반은 1946년 6월 1일 평양 사동으로 옮겨 북조선공산당중앙당학교로 개편되었다.<sup>40)</sup> 평양학원 군사반은 1946년 7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35호에 따라 보안간부훈련소와 통합되었다. 그와 동시에 평남 강서군 성암면 대안리로 옮겨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로 개편되었다.<sup>41)</sup> 기존 연구에서

37)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金貞珩, 『幹部履歷書』).

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75쪽.

39)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 중앙일보사, 1993, 75쪽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4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1, 127쪽.

40)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71~72쪽.

41) 「보안간부학교 설립에 관한 건」, 『북한관계사료집』 5권, 국사편찬위원회, 1987, 665~666쪽.

는 평양학원이 1946년 6·7월에 2개 학교로 통합된 이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sup>42)</sup> 위에서 살펴보았듯 평양학원 제2기생들은 1946년 5월 1일 입학해 9월 16일 졸업했다. 즉, 평양학원 정치반과 군사반이 2개 학교로 개편된 이후에도 평양학원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었다.

1946년 6·7월에 들어 평양학원은 중대단위로 개편되었다. 즉, 노어(露語)중대, 통신중대, 항공중대, 여성중대, 대남반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학원 내에 교무부와 문화부를 두었다. 학생수는 노어중대 200명, 통신중대 100명, 항공중대 100명, 여성중대 300명, 대남반 100명으로 총 800명이었다.<sup>43)</sup> 학생수는 창설 초기 300여 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노어중대 출신은 소련고문의 통역관과 각 군조직에서 정치부를 담당하였다. 통신중대 출신은 통신기술과 시설 등을 담당하였다. 항공중대 출신은 비행기조종술과 정비교육을 받은 후 공군 창설의 기초작업을 담당하였다. 여성중대는 정치교육만 실시하였고, 당·인민위원회·여성단체에 등용될 여성간부들을 육성하였다. 대남반은 남로당원들로 구성해 유격대원을 양성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들 중에서 선발된 20명은 하바로프스크 극동군관학교에 파견되어 소련군사교육을 받았다.<sup>44)</sup>

결국, 1946년 6·7월이후 평양학원의 성격은 달라졌다. 창설 당시의 정규군 핵심 정치·군사군관 양성 임무는 북조선공산당중앙당학교와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로 이전되었다. 1946년 6·7월 이후 평양학원은 정치군관, 통신군관, 항공군관, 여성정치간부, 대남유격대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그 후 평양학원의 일부인 대남반은 1948년 1월 1일 강동정치학원으로 흡수되었고, 항공중대는 1948년 9월 9일 민족보위성 예하 항공대로 독립되었다. 최종적으로 평양학원은 1949년 1월 평양 만경대로 학교를 이전하고 '인민군 제2군관학교'로 개편되었다.<sup>45)</sup>

42) 김광운, 앞의 책, 472~480쪽.

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75쪽.

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75쪽.

4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76쪽.

### 3.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의 조직과 운영

평양학원과 함께 해방직후 북한의 대표적인 무력양성기관은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이하 중앙보안간부학교)이다. 중앙보안간부학교는 1946년 4월 초순에 학교터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창설준비에 들어갔다.<sup>46)</sup> 학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35호에 따라 1946년 7월 8일 창설되었다. 중앙보안간부학교는 처음부터 '군 초급간부 양성기관'을 목표로 설립되었다.<sup>47)</sup>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병·포병·통신·공병을 비롯한 여러 병종의 지휘관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이었다.<sup>48)</sup> 이 학교는 향후 정규군 창설을 대비한 각 병종 군관양성기관이었다. 학교는 평양학원의 군사반과 보안간부훈련소를 통합해 설립되었다.<sup>49)</sup> 학교가 창설된 지역은 평안남도 강서군 성암면 대안리로 알려져 왔다.<sup>50)</sup> 그러나 중앙보안간부학교 졸업생의 이력서를 확인한 결과, 당시 학교소재지의 행정구역명은 "평안남도 용강군(龍岡郡) 성암면(城岩面) 대안리(大安里)"로 밝혀졌다.<sup>51)</sup> 학교터도 조선철강공장자리로 알려져 왔다.<sup>52)</sup> 그러나 사실은 대안전기공장 합숙시설에 설립되었다. 교내에는 중대 내무반, 건국실, 교직원·종업원들의 사택마을, 운동장, 보초소, 군인상점, 리발소, 세탁소, 피복수리소, 두부공장이 설치되어 있었다.<sup>53)</sup>

중앙보안간부학교는 항일연군파인 손종준, 최병열, 김준동, 박성철<sup>54)</sup>과 의용군계열인 박효삼 등 30여 명, 평양학원 단기수료생 10여 명이 주축이 되어 창설되었다.<sup>55)</sup> 학생 심사는 무정(武亭, 의용군계), 최용건(崔庸健,

46) 태병렬·오찬복, 앞의 책, 71~72쪽.

47) 「보안간부학교 설립에 관한 건」, 앞의 책, 665~666쪽.

48) 태병렬·오찬복, 앞의 책, 71쪽.

49) 「보안간부학교 설립에 관한 건」, 앞의 책, 665~666쪽.

50) 태병렬·오찬복, 앞의 책, 76: 86쪽.

51)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安慶律, 『幹部履歷書』).

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77쪽.

53) 태병렬·오찬복, 앞의 책, 76: 86쪽.

54) 원문에는 '박성철'로 되어 있으나 '박성철'이 맞다.

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77쪽.

항일연군과), 김책(항일연군과), 김웅(金雄, 의용군계), 장종식(張鐘植, 국내사회주의계)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았다. 직원은 학교장, 부교장(정치지도자), 부교장(훈련책임자), 경리부장, 기타 직원으로 이루어졌다.<sup>56)</sup> 심사위원의 구성을 보면 항일연군과와 의용군계의 군사부문 최고권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장종식은 국내사회주의계열을 배려해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보안간부학교의 교장은 박효삼(朴孝三, 의용군계), 부교장(군사분야)은 최용진(崔勇進, 항일연군과), 부교장(정치분야)은 김웅(의용군계), 전술학부장은 유성철(柳城鐵, 소련계), 포병학부장은 전학준(全學俊, 소련계), 사격학부장은 박길남(朴吉南, 소련계), 통신학부장은李宗仁(李宗仁, 소련계)이 맡았다.<sup>57)</sup> 창설 당시 교무부장은 손달(孫達, 의용군계)이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sup>58)</sup> 중앙보안간부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다. 박효삼이라는 주장과,<sup>59)</sup> 박효삼은 1946년 6월 6일 신설된 ‘중앙정치간부학교’ 교장이었으므로 알 수 없다는 주장<sup>60)</sup>이 있다. 박효삼이 중앙정치간부학교 창설 당시 교장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다.<sup>61)</sup> 그러나 박효삼은 동시에 중앙보안간부학교의 창설멤버였다. 또한, 창설멤버 중 군사경력이 가장 풍부하였으므로 그가 교장이 되었다는 증언도 믿을 만하다. 김중생도 해방직후 북한에서 활동한 조선의용군출신들의 증언을 토대로 박효삼이 입북후 보안간부학교장을 역임했다고 서술했다.<sup>62)</sup> 중앙정치간부학교가 창설된 지 32일

56) 「보안간부학교 설립에 관한 건」, 앞의 책, 665~666쪽.

57) 유성철, 『증언 : 김일성을 말한다』, 한국일보사, 1991, 65~66쪽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72쪽; 김광운, 앞의 논문, 20쪽.

58)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0, 124쪽. 김중생은 손달이 “입북 후 보안간부학교 정치교무부장”을 역임했다고 기술했다.

59) 중앙보안간부학교 전술학부장을 역임한 유성철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유성철, 앞의 책, 65~66쪽;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72쪽; 장준익, 앞의 책, 50쪽. 장준익도 유성철의 증언에 따라 학교편제와 간부를 서술하였다.

60) 김광운의 견해이다. 김광운은 두 학교가 20일 간격을 두고 신설되었고 이름도 비슷하여 유성철이 혼동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김광운, 앞의 책, 478쪽.

61) 「중앙정치간부학교신설에 관한 결정서」, 『북한관계사료집』 5권, 군사편찬위원회, 1987, 661~662쪽.

62) 김중생, 앞의 책, 123쪽.

이 지난 시점에서 중앙보안간부학교가 신설되었으므로, 박효삼이 중앙정치간부학교 교장을 잠시 맡다가 중앙보안간부학교가 신설되자 보직을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외 중앙보안간부학교 지휘성원으로는 박영빈(朴永彬, 소련계), 리두익(李斗益, 항일연군파), 태병렬(太炳烈, 항일연군파), 오찬복(吳燦福, 항일연군파) 등이 활동하였고, 고문은 스페레주크 소좌였다.<sup>63)</sup> 또한, 교원 중에는 의용군출신 간부들도 있었다. 특히 중앙보안간부학교의 전술 훈련은 소련계 고려인들이 맡았다.<sup>64)</sup> 교원들을 보면 유독 소련계가 많다. 이는 학교 설립 당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학교교원을 소련군사령부 소속 인원중에서 초빙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sup>65)</sup> 간부들 중 학교교장과 2명의 부교장, 경리부장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직접 임명하였다. 그 외 직원은 학교장이 선택하여 1946년 7월 15일 이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비준을 받았다.<sup>66)</sup>

중앙보안간부학교의 간부진을 보면, 의용군계가 교장과 정치지도 부교장을 맡았고, 항일연군파는 훈련책임 부교장을 맡았다. 소련계는 전술·포병·사격·통신 등 전술·기술병과를 맡았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전술·기술병과를 소련계가 맡은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평양학원과 달리 의용군계열이 중요직책을 맡고 교관으로도 충원되었다. 그러나 약 한달후 항일연군파는 중앙보안간부학교에 자파의 세력을 확대했다. 1946년 8월 16일 북조선임시인위는 중앙보안간부학교의 정치부교장과 교무부장을 새로 임명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항일연군파였다.<sup>67)</sup> 결국, 중앙보안간부학교는 앞의 평양학원과 달리 3개 세력이 역할을 분담했다. 의용군계는 교장과 일부 교원직을 맡았고, 항일연군파는 정치·군사 부교장과 교무부장을 맡았으며, 소련계는 전술·기술병과와 대부분의 교원직을 맡았다.

중앙보안간부학교의 초기 정원은 500명이었고, 교육기간은 1년이였다. 이

63) 이정희, 『북한요론』, 문헌사, 1987, 245쪽.

64)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72쪽.

65) 「보안간부학교 설립에 관한 건」, 앞의 책, 665쪽.

66) 『김일성전집』 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09~110쪽.

67) 『김일성전집』 4권, 109~110쪽.

들의 학과수업은 1946년 7월 20일 시작되었다.<sup>68)</sup> 평양학원이 3~4개월의 단기과정이었음에 비해, 향후 정규군 군관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학생들은 '조선애국자'를 선발하도록 하였고, 3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청년으로 7학년 졸업(중학교 1학년 수료)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입학지원자는 도·시·군·면인민위원회 등의 추천장을 지참하도록 하였다.<sup>69)</sup> 학생들은 주로 지방보안대원과 인민위원회 '극렬좌익분자(열성분자)'였다고 한다.<sup>70)</sup> 중앙보안간부학교 제2중대장이었던 태병렬에 따르면,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농민출신이었고, 사무원과 학생 출신들도 있었다.<sup>71)</sup> 기간요원들이 먼저 4개월간의 교관훈련을 받았다. 그 직후 제1기생을 모집하였고 제1기생은 1946년 10월 22일 입학하였다.<sup>72)</sup> 중앙보안간부학교 제1기생으로는 김일성의 일가친척들도 입학하였다.<sup>73)</sup>

중앙보안간부학교의 초기정원은 500명이었지만, 제1기생은 총 300명을 선발해 3개 중대로 편성하였다. 제1중대는 보병중대로 120명, 제2중대는 포병중대로 120명, 제3중대는 통신중대로 60명을 편성하였다.<sup>74)</sup> 각 중대의 중대장은 모두 소련계 고려인들이었다.<sup>75)</sup> 중앙보안간부학교 제1기생의 졸업식은 1947년 11월 10일로 알려져 있지만,<sup>76)</sup> 확인결과 1947년 10월 26일로 밝혀졌다.<sup>77)</sup> 제1기생 졸업식은 김일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모든 졸업생들에게는 군관견장이 달린 새 군관복이 지급되었다. 먼저 졸업생들의 분열행진이 있었다. 이어서 졸업생들의 '반탱크포·박격포·곡사포·중기관총 무기실탄사격'이 실시되었다. 실탄사격이 끝난 후 김일성은 우수한 사격술을 보여준 졸업생·전체 교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

68) 「보안간부학교 설립에 관한 건」, 앞의 책, 665~666쪽.

69) 「보안간부학교 설립에 관한 건」, 앞의 책, 665~666쪽.

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77쪽.

71) 태병렬·오찬복, 앞의 책, 77쪽.

7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77쪽.

73) 태병렬·오찬복, 앞의 책, 66쪽.

74)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72쪽.

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78쪽.

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78쪽.

77) 태병렬·오찬복, 앞의 책, 81쪽.

을 촬영하였다.<sup>78)</sup> 제1기생들은 졸업직후 대부분 각종 군사교관으로 등용되었다.<sup>79)</sup>

중앙보안간부학교의 교과과정은 소련 국방성 총정치국의 지시에 따라 소련군 제25군 정치부가 작성하였고, 군사회의가 승인하였다.<sup>80)</sup> 중앙보안간부학교는 소련군관학교 체계를 그대로 모방하였다. 단, 소련군관학교의 교육기간이 3년이었음에 비해 중앙보안간부학교는 속성과정으로 초급군관을 양성하기 위해 1년으로 단축하였다.<sup>81)</sup> 그런데 교육기간에 대해 당시 북조선로동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었다. 김일성은 국내사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1년으로 하자고 했으나, 일부 간부들은 3년으로 하자고 주장했다.<sup>82)</sup> 아마도 소련군관학교체계를 따르자는 소련계의 주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교육과정은 김일성의 주장대로 1년으로 결정되었다. 제1기생이 배출된 이후 학교의 편제는 종합군관학교의 규모로 확장되어 기존 중대에 위생중대, 경리중대, 공병중대가 증편되었다.<sup>83)</sup> 중앙보안간부학교 졸업생은 대부분 소대장(소위)으로 임명되었고, 성적이 좋은 일부 졸업생은 중대장(중위)로 임명되었다.<sup>84)</sup>

필자는 중앙보안간부학교 입학생들의 경력과 졸업후 행적을 살펴보았다. 노획문서에는 중앙보안간부학교 기간요원의 이력서가 있다. 한연주는 1924년 함남 신흥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신흥군 하원천면공립보통학교 6년 과정을 졸업했다. 1938년 3월부터 1945년 6월 17일까지 신흥군 소재 광업사 기계수리부와 흥남비료공장 본영공작과(本營工作科) 와사(瓦斯)용접공으로 근무했다. 1945년 6월 18일 징병되어 만주 길림성 제93000부대<sup>85)</sup>에 입대했

78) 태병렬·오찬부, 앞의 책, 82~84쪽.

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78쪽.

80) 김광운, 앞의 책, 479쪽.

81)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72쪽.

82) 태병렬·오찬부, 앞의 책, 79쪽.

8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78쪽. 원문에는 '공병중대' 대신 '통신중대'가 증편되었다고 서술되어 있으나, 통신중대는 창설 당시부터 편제되어 있었으므로 '공병중대'로 정정하였다.

84)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72쪽.

85) 일본이 만주에 주둔시킨 관동군부대 중 하나이다.

다가 1945년 9월 9일 귀국했다. 1945년 9월 10일부터 다시 흥남인민공장 본영공작과 와사용접공으로 근무했다. 그는 1946년 4월 19일 조선공산당에 입당했다. 그리고 1946년 6월 28일 중앙보안간부학교에 입학해 16개월간 교육받았다. 졸업직후 제1보병사단 3연대 2대대 직속 반총소대에 배속되었다.<sup>86)</sup> 경력을 보면, 그는 중앙보안간부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이미 학교에 배치되었다. 그는 여기서 16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이는 4개월간의 교관훈련 후에 1년간 교관으로 활동했음을 보여준다. 용접공 출신인 그가 중앙보안간부학교의 기간요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일본군 경력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노획문서에는 중앙보안간부학교 졸업생의 이력서도 있다. 김규현은 1922년 평남 안주군에서 태어났다. 출신성분은 빈농이며, 일제강점기에는 안주군에서 농업에 종사했다. 그는 1945년 5월 일본군에 입대해 '경상남도 진해군 일제해병단'에서 복무했다. 1945년 9월부터 1946년 5월까지 평남 안주군 신안주면 민청 소년부책임자로 일했다. 1946년 7월 17일 평남 용강군 성암면 중앙보안간부학교에 입학해 1947년 10월에 졸업했다. 졸업직후 평양특별시 제2연대 6중대 소대장으로 발령받았다. 1948년 11월 28일부터 제1사단 3연대 2대대 6중대 소대장으로 발령받아 1949년 1월 15일까지 근무중이었다.<sup>87)</sup>

염태국은 1925년 함북 경성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함북 청진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함북 청진태성중학교 2년 과정을 수료했다.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제국상업학교를 졸업했다. 해방직후 함북 청진군 민청 초급위원회 군사부에서 활동했다. 1946년 11월 7일 중앙보안간부학교에 입학해 1947년 졸업했다. 졸업직후 제1사단 3연대 2대대 6중대 2소대장으로 발령받았다.<sup>88)</sup>

안경률은 1925년 함남 문천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함남 문천군 북성면

86)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韓演柱, 『幹部履歷書』).

87)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김규현, 『幹部履歷書』).

88)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廉泰國, 『幹部履歷書』).

북성공립보통학교 6년과정을 졸업했다. 일제강점기에는 함남 문천군 북성면 제분소 분사계 견습과 함남여객자동차회사 문산지점 견습으로 일했다. 1945년 8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함남 문천군보안서 문평분서 분대장으로 활동했다. 1945년 11월 21일부터 1946년 9월 24일까지 함남 문천군소비조합 회계원으로 근무했다. 1946년 10월 1일 평양학원에 입학해 11월 23일까지 공부했다. 1946년 11월 24일 중앙보안간부학교에 입학해 1947년 10월 25일 졸업했다. 졸업직후 제1사단 3연대에 배치되었다.<sup>89)</sup>

위에서 확인한 졸업생들의 이력서에 따르면, 중앙보안간부학교 학생들의 연령은 약 22~25세였다. 출신성분은 빈농이나 소농이었다. 평양학원 학생들과 달리 이들중 일부는 일본군 경력자였다. 학생들은 대부분 국졸 이상 이었고, 일부는 중·고등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해방직후 지방 민청이나 보안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 경력을 바탕으로 중앙보안간부학교에 입학하였다.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인민군 보병부대로 배치되었다. 일부는 바로 소대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일부는 전사로 임명되었다. 중앙보안간부학교 졸업생중 인민군에 배치된 사람들은 전쟁 직전까지 소대장급에 머물러 있었다. 평양학원 졸업생들이 인민군 고급군관으로 육성된 데 비해, 중앙보안간부학교 졸업생들은 인민군 초급군관으로 육성되었다.

그후 중앙보안간부학교는 1948년 12월 초 평양 사동으로 이전하여 '제1군관학교'로 개칭되었다.<sup>90)</sup> 결국, 중앙보안간부학교는 각 병종 군관양성기관으로 창설되었고 개편 이후에도 본래의 조직성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89)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安慶律, 『幹部履歷書』).

9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78쪽.

#### 4. 보안간부훈련소의 조직과 운영

앞에서 살펴본 군관양성기관과는 달리 해방직후 북한지역에는 무력기관에 배치될 대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조직되었다. 이것이 보안간부훈련소이다. 1946년 6월 초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평남 개천에 '보안간부훈련소'를 설치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뒤이어 신의주에 보안훈련소 제1분소, 정주에 제2분소, 강계에 제3분소를 각각 설치하였다.<sup>91)</sup> 기존 연구에서는 이 무력기관의 명칭에 대해 혼란이 있었다. 공식전서는 1946년 6월 초순에 창설된 이 기관을 '보안훈련소, 개천보안훈련소'라고 쓰고 있다.<sup>92)</sup> 장준익은 '보안훈련소, 보안간부훈련 제1·2·3소'라고 쓰고 있다.<sup>93)</sup> 김광운은 '보안간부훈련소'라고 쓰고 있다.<sup>94)</sup> 필자는 인민군 내부문서를 통해 기관의 명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확한 명칭은 '보안간부훈련소'이다. 내부문서에서는 개천에 처음 설치된 보안간부훈련소를 "개천훈련소"라고도 썼다. 강계의 보안간부훈련소 제3분소의 경우, "보간제3분소(保幹第三分所), 강계보간3분소(江界保幹三分所), 강계훈련소"라고도 썼다.<sup>95)</sup>

보안간부훈련소는 각 도에 보안대가 창설되자 보안대원의 모집과 훈련을 위해 설치되었다.<sup>96)</sup> 각 분소에는 해당지방 청년들을 입소시켜 보안대원과 철도경비대원을 육성하였다.<sup>97)</sup> 병사모집에 있어서는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청년들 중에서 지원형식으로 모병하였다. 그 후에는 민청원과 당원들을 집단적으로 입소시켜 각 훈련소에서 이들을 훈련시켰

9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80쪽.

9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80~681쪽

93) 장준익, 앞의 책, 45: 55쪽.

94) 김광운, 앞의 책, 572쪽.

95)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白承麟, 『幹部履歷書』);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金鎮瑤, 『幹部履歷書』). 백승린의 이력서에 "价川訓練所"와 "江界訓練所"라는 명칭이 나온다. 김진선의 이력서에는 "江界保幹三分所"와 "保幹第三分所"라는 명칭이 나온다.

96) 장준익, 앞의 책, 45: 55쪽.

9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80쪽.

다.<sup>98)</sup> 즉, 창설 당시 보안간부훈련소는 보안대·경비대 대원양성기관이었다. 그러나 보안간부훈련소 분소의 훈련과정은 미약했고 장비도 일본제 99식소총 뿐이었다. 이들은 초기에 2주간의 일본식 군사훈련을 받고, 훈련이 끝나면 각 지방의 보안서와 각 역의 철도경비대원으로 배치되었다.<sup>99)</sup> 일부 대원들은 훈련이 끝난후 다른 훈련소로 배치되어 재훈련을 받기도 했다. 백승린의 경우, 1946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천훈련소에서 훈련 받은 후, 다시 1946년 10월 11일부터 1950년 4월 초까지 장계훈련소에서 재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근무했다.<sup>100)</sup>

보안간부훈련소의 대원은 기본적으로 북한지역 청년들이었다. 보안간부훈련소 각 분소는 해당지방 청년들을 입소시켜 교육하였다.<sup>101)</sup> 또한, 창설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지역 청년들을 충원하였다. 예를 들어 1946년 11월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에서는 수백명의 신병 충원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황해도와 평안남도 출신 청년들이었다. 12월 초순 다시 신병 충원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회령의 제3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신병충원으로 12월 초순에 이르러 대대의 편제상 정원이 대부분 충원되었다.<sup>102)</sup> 개천에 있는 보안간부훈련소에는 평양학원 졸업생들도 입소했다.<sup>103)</sup>

그러나, 보안간부훈련소 제1분소와 제2분소는 1946년 4월 만주에서 강건(姜健)이 데리고 입북한 조선의용군 병력을 주축으로 만들어졌다.<sup>104)</sup> 또한, 1946년 봄에는 훈춘보안단 소속 2,000여 명이 입북해 각지의 보안간부훈련소에 배치되었다. 훈춘보안단은 보안단장인 김흠(金鑫)이 인솔해 입북했지만, 실제 지휘관은 항일연군파의 최광(崔光)이었다.<sup>105)</sup> 그리고, 1946년 6월

9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81쪽.

9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80쪽.

100)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白承麟, 『幹部履歷書』).

10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80쪽.

102)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 고려원, 1990, 89~90; 92쪽.

103)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박승규, 『幹部履歷書』). 박승규는 1946년 9월 7일 평양학원을 졸업하고 9월 26일 개천의 보안간부훈련소에 배치되었다.

104) 한상구, 『팔로군 출신 방호산 사단 정치보위부 최태환의 증언 : 6·25전쟁 발발의 실상을 밝힌다』, 『역사비평』 1988년 가을호, 역사비평사, 1988, 365쪽.

105) 김중생, 앞의 책, 141쪽.

조양천 교도대대 졸업생 500명이 입북해 보안간부훈련소에 분산·배치되었다. 동북군정대학 교장 후보장은 이들에게 입북의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했고, 이들은 중대별로 회령으로 도강하여 함흥으로 입북하였다. 이들은 함흥에서 약 한 달동안 집중교육을 받고, 보안간부훈련소에 분산·배치되었다.<sup>106)</sup> 앞에서 본 평양학원이 철저히 항일연군파에 장악되었음에 비해, 보안간부훈련소에는 다수의 조선의용군계열이 들어왔다. 이는 향후 정규군 창설과정에서 정규군에 다양한 군사적 요소가 나타나는 계기가 된다.

보안간부훈련소는 1946년 하순에 들어 제1단계 재편에 돌입한다. 북조선로동당은 1946년 11월 10일 보안간부훈련소(개천)와 그 분소(제1·2·3분소)를 철도경비훈련소(개천·나남)와 통합하여 단일부대로 편성하였다. 그 결과 '보안간부훈련 제1분소(개천)'와 '보안간부훈련 제2분소(나남)'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철도경비대를 해체하여 '보안간부훈련 제3분소(평양)'를 설치하였다. 13개 철도경비중대는 3개 철도경비대대로 개편하여 보안간부훈련 제3소의 예하부대로 편성하였다.<sup>107)</sup> 이 개편으로 기존에 북한지역에 창설되었던 철도경비대, 철도경비훈련소는 모두 보안간부훈련소 제1·2·3분소로 통합·재편되었다. 신의주의 보안간부훈련소 제1분소와 정주의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는 다른 분소로 통합되었다. 보안간부훈련소 제1분소 문화부소장은 서철(徐哲)이 맡았고,<sup>108)</sup> 참모장은 1946년 중국에서 입북한 최광이 맡았다.<sup>109)</sup> 보안간부훈련소 제2분소 소장은 강건이 맡았다.<sup>110)</sup> 강계에 설치된 제3분소 소장은 최현(崔賢)이 맡았다.<sup>111)</sup> 1946년 11월 현재 보안간부훈련소의 주요간부는 모두 항일연군파가 장악하고 있었다. 평양학원과 함께 무력양성기관 지휘부에 대한 항일연군파의 장악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106) 김중생, 앞의 책, 139~140쪽.

107) 『육군전사』 1권, 육군본부, 1952, 부표 제1의 3·4, 장준익, 앞의 책, 56쪽에서 재인용.

108) 『로동신문』, 1997.11.5.

109)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8,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293쪽.

110) 안룡선, 『위대한 수령님과 전사 강건』, 금성청년출판사, 1998, 93~100쪽.

111) 「강계군 당단체의 사업정형에 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 결정서, 1946.12.4)」, 『북한관계사료집』 30권, 국사편찬위원회, 1998, 61쪽. 이 회의 결정서에 최현의 직책이 “강계군 보안간부훈련소 대장”으로 나온다.

사실, 보안간부훈련소는 1946년 하순부터 내부적으로 이미 보병사단으로 재편되었다. 개천의 보안간부훈련소 제1분소는 제1보병사단, 나남의 보안간부훈련소 제2분소는 제2보병사단, 평양의 보안간부훈련소 제3분소는 제3보병사단이 되었다.<sup>112)</sup> 보안간부훈련소가 보병사단으로 재편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쉬띠꼬프는 1946년 9월 7일자 일기에 북한지역 “경보병사단”의 정원을 기재하고 있다.<sup>113)</sup> 즉, 보안간부훈련소가 내부적으로 경보병사단으로 재편된 시기는 1946년 9월 초로 보인다. 인민군 이력서도 1946년 후반기에 재편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한 인민군 간부의 제1보병사단 전입시기는 1946년 12월 10일이다. 또한, 제2보병사단 6연대로 직접 입대한 간부의 입대시기는 11월 28일이다.<sup>114)</sup> 1946년 9월 7일 현재 경보병사단의 정원은 9,957명이었고, 연대·대대의 지휘관과 부지휘관은 815명이었다.<sup>115)</sup> 결국, 보안간부훈련소는 1946년 9~11월 사이에 내부적으로 보병사단으로 재편하고 철도경비대를 완전히 흡수하였다. 이 1단계 재편은 보안간부훈련소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보안간부훈련소는 처음에 보안대·경비대의 대원양성기관으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1단계 재편이후 보안간부훈련소는 대원양성기관에서 벗어나 정규군 창설을 준비하는 보병부대로 전환되었다. 단, 보안간부훈련 제3소 이하 3개 철도경비대대만은 여전히 철도경비대 시절의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제1보병사단은 개천에 사단사령부를 두고, 예하에 제1보병연대(신의주), 제2보병연대(정주), 제3보병연대(강계), 포병연대(개천)<sup>116)</sup>, 교도대대(평남안주)<sup>117)</sup>를 두었다. 제2보병연대의 주둔지는 기존에 재령으로 알려져 왔지

112) 주영복, 앞의 책, 92~93쪽.

113) 『쉬띠꼬프 비망록』, 중앙일보사 내부번역본, 1946.9.7.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쉬띠꼬프일기』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 『쉬띠꼬프일기』, 국사편찬위원회, 2004, 3쪽.

114)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장춘주, 『幹部履歷書』).

115) 『쉬띠꼬프 비망록』, 1946.9.7.

116) 주영복, 앞의 책, 92~93쪽.

117)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김상학, 『幹部履歷書』). 김상학은 1947년 8월 23일부터 1948년 3월 24일까지 평남 안주에 있는 “국방제1사단 교도대대” 전사로 근무했다.

만,118) 확인결과 1947년 4월까지 평북 정주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다 1947년 5월 평양으로 이전해 1949년 11월까지 계속 평양에 주둔했다.119) 제2보병사단은 나남에 사단사령부를 두고, 예하에 제4보병연대(회령), 제5보병연대(평양),120) 제6보병연대(나남), 포병연대(강덕)를 두었다. 1946년 12월 현재 제2보병사단의 병력은 10,000여 명으로, 예하부대의 병력은 각 연대 2,700여 명, 교도대대 300명, 정찰대대 200명, 통신대대 200명, 공병대대 240명, 운수자동차중대 120명, 군악소대 30명 등이었다.121)

보안간부훈련소가 보병사단으로 재편된 이후 주요간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나남에 있던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제2보병사단)의 주요간부를 알 수 있다. 제2보병사단의 사단장은 강건(소장), 문화부사단장은 림해122) (林海, 대좌), 참모장은 리익성(대좌), 공병참모는 양승환(梁承煥, 중좌), 제4연대장은 류경수(柳京洙, 대좌), 제5연대장은 최용진(崔勇進, 대좌), 제6연대장은 리영호(李榮鎬, 대좌), 포병연대장은 한진덕(韓振德, 대좌), 포병연대 제1대대장은 김용파(金容波, 소좌), 제6연대 통신대대장은 나운혁(羅雲赫, 소좌), 제6연대 공병참모는 김형기(金亨基, 대위), 사단장 고문은 스피르노프 대좌123)였다.124)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보안간부훈련소의 부대규모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장준익은 보안간부훈련소가 '사단급'이었다고 주장하였다.125) 주영복도 보안간부훈련소가 실제로는 사단편성이었다는 증언하였다. 소련군고문들은

118) 주영복, 앞의 책, 92~93쪽.

119)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곽주홍, 『幹部履歷書』).

120) 옥병환은 1946년 12월 11일 '제2보병사단 5연대 1대대 3중대'로 입대했다. 그가 입대할 당시 제5연대는 '라남'에 있었다. NARA, RG 242, SA 2009, Box 4, Item 111.4(옥병환, 『자서전』, 1950.2.25).

121) 주영복, 앞의 책, 92~93쪽.

122) 이시기 북한에는 '임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사람이 3명이었다. 본문의 임해는 최용진과 함께 만주에서 활동한 임해이다. 김광운, 앞의 책, 374쪽.

123)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사령관 총고문 스피르노프 소장파 동명이인이다.

124) 나남 보안간부훈련소 러시아어 통역으로 근무한 주영복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참모장이 '李益宣'이었다고 증언하였지만, 의용군계열인 리익성이 맞다. 주영복, 앞의 책, 72~73; 76; 85; 93; 105; 110; 112쪽.

125) 장준익, 앞의 책, 56쪽.

보안간부훈련소를 ‘경보병사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sup>126)</sup> 또한, 내부에서는 제1보병사단을 ‘제1보병국방사단’ 또는 ‘국방제1사단’으로 기재하기도 했다.<sup>127)</sup> 그런데, 중앙보안간부학교 전술학부장을 역임한 유성철은 1948년 전에는 사단 창설이 없었고 모두 연대급이었다고 증언했다.<sup>128)</sup> 사실 보안간부훈련소가 보병사단으로 재편되었지만, 부대편제는 아직까지 완편된 상태가 아니었다. 주영복은 보안간부훈련소 예하의 대대가 2개 중대만으로 편제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나남 보안간부훈련소 통신대대는 편제상 정원이 25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46년 8월 현재 인원은 50여 명에 불과했다. 그중 50%가 군관이었고 계급장은 달지 않았다.<sup>129)</sup> 결국, 3개 보안간부훈련소의 부대편제는 사단급이었지만, 실제 인원은 연대급이었다고 이해해야 한다. 또한, 여기에는 우선 군관급을 주축으로 보병사단을 편성하고, 향후 정규군 창설시 전사들을 보충해 급속히 부대를 완편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1947년 3월에 들어 보안간부훈련소는 2단계 재편에 돌입한다. 1947년 3월 철도경비대를 주축으로 편성된 보안간부훈련 제3소(평양)는 해체되어 본부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사령부로 통합되었다. 해체된 평양의 보안간부훈련 제3소 대신 원산에 새로운 ‘보안간부훈련 제3소’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평양의 보안간부훈련 제3소 예하의 3개 철도경비대대는 기존의 철도경비 임무를 각 도 보안대에 인계하고 3개 보안간부훈련소에 분산·배속되었다.<sup>130)</sup> 즉, 철도경비 제1대대는 ‘보안간부훈련 제1소’, 철도경비 제2대대는 ‘보안간부훈련 제2소’, 철도경비 제3대대는 ‘보안간부훈련 제3소’로 각각 배

126) 주영복, 앞의 책, 74쪽.

127)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김수산, 『幹部履歷書』);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김상학, 『幹部履歷書』). 김수산은 “제1보병국방사단 제3보병연대 2대대 6중대 3소대 2분대 부분대장”을 역임했다. 김상학은 “국방제1사단 교도대대 전사”로 근무했다.

128) 유성철, 앞의 책, 73쪽.

129) 나남 경보병사단 공병대대와 달리 소련군 중보병사단 공병대대의 편제는 600~800명이었다. 주영복, 앞의 책, 83쪽.

130) 장준익, 앞의 책, 56~57쪽.

속·전환되었다. 이 3개 보안간부훈련소 분소는 북한 전역을 3개 지역으로 분할해 배치되었다. 보안간부훈련 제1소(개천)는 서부지역인 해주, 사리원, 강계, 신의주에 예하 중대를 배치하였다. 보안간부훈련 제2소(나남)는 동북부지역인 성진, 길주, 서천, 상삼봉(上三峰)에 예하 중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보안간부훈련 제3소(원산)는 중동부지역인 함흥, 신포, 양덕, 원산에 예하 중대를 배치하였다.<sup>131)</sup> 이 3개 훈련소의 명칭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보안간부훈련 제1·2·3소’라고 서술하고 있다.<sup>132)</sup>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결과, 훈련소의 정확한 명칭은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제1·2·3소”였다. 또한, 1947년 9월 18일 현재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제3소 소장을 내무국 공문에서는 이미 ‘사령관’으로 기재하고 있었다.<sup>133)</sup>

2단계 재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재편으로 보안간부훈련소에 일부 남아있던 경비임무는 완전히 이관되었다. 이로써 보안간부훈련소는 보안대·경비대 대원양성기관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예하의 보병사단으로 전환되었다. 경비대수준을 넘어 정규군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다. 2단계 재편 이후에도 보안간부훈련소는 대내외적으로 ‘보안간부훈련대대부 분소’라고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정규군 보병사단이었다.

필자는 보안간부훈련소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입소했는지 알아보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보안간부훈련소에는 조선의용군출신과 북한출신 청년들이 모두 입소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이를 알아보자. 김홍범은 조선의용군출신으로 보안간부훈련소에 입소한 경우이다. 그는 1924년 9월 19일 함북 명천군에서 태어났다. 1939년 동북 길림성 화룡현 동성구 광동소학교를 졸업하고, 1943년 동북 길림성 장춘시 실무중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1944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장춘시 시공서(市公署) 위생과와 장춘시 측량사(測量社)에서 근무했다. 김홍범은 해방을 맞아 귀가했다가 1945년 9월 15일 화룡

131) 장준익, 앞의 책, 56~57쪽.

132) 장준익, 앞의 책, 56~57쪽.

133) 「가옥명도증지에 관하여(北內保監 第號, 내무국장 박일우→보안간부훈련대대부 제3소 사령관, 1947.9.18)」, 『북한관계사료집』 9권, 국사편찬위원회, 1988, 381쪽.

현 동성춘 민주대동맹청년회에 가입했다. 1946년 4월 1일 '길동군정대학교'<sup>134)</sup>에 입학했다. 그는 이곳에서 교육받다가 1946년 8월 23일 입북했다. 입북후 1946년 9월 27일부터 개천에 있는 보안간부훈련소에서 1개월 반동안 훈련을 받았다. 훈련이 끝나자 1946년 12월 10일 보안간부훈련소 제3분소 2대대 5중대 1소대 소대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이곳에서 1949년까지 근무했다.<sup>135)</sup>

박승규는 북한출신으로 보안간부훈련소에 입소한 경우이다. 그는 1927년 2월 15일 평남 맹산군에서 태어났다. 출신성분은 빈농이며, 일제강점기에는 소작농이었다. 학력은 무학이다. 1945년 해방직후 평남 맹산군에서 치안대대원과 리농민위원회 간부, 맹산군 정치학원 학생, 맹산군 보안서 경비대대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1946년 5월 2일 평양학원 군사과에 입학해 1946년 9월 7일 졸업했다. 졸업직후 9월 26일 평남 개천에 있는 보안간부훈련소에 입소해서 11월 7일 퇴소했다. 1946년 11월 8일 제1사단 3연대 3대대 9중대 중기소대장으로 발령받아 1949년 5월 12일까지 근무했다. 1949년 5월 13일 중기중대장으로 진급했다.<sup>136)</sup>

두 사람의 경력을 살펴보면, 입소당시 김홍범은 23세, 박승규는 20세였다. 김홍범은 중학교를 졸업했고, 해방직후에는 길동군정대학을 졸업했다. 이에 비해 박승규는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해방직후 맹산군 정치학원을 다녔다. 두 사람 모두 훈련기간은 1개월 반이었고, 퇴소후에는 소대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김홍범이 전쟁직전까지 소대장에 머물렀음에 비해 박승규는 중대장으로 진급했다. 박승규가 평양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일 것이다. 보안간부훈련소의 훈련기간은 앞에서 살펴본 두 기관에 비해 매우 짧다. 이는 앞의 두 기관이 군관양성기관이었음에 비해 이 시기 보안간부훈련소는 대원양성기관이었기 때문이다.

134) 길동군정대학은 1946년 3월 연변에 설립된 군정간부 양성기관이다. 군정대학은 만주로 진출한 조선의용군을 주축으로 설립되었다. 중국공산당은 1946년 6월 동만에 있던 조양 천교도대, 화전군정학교, 길동군정대학을 모두 동북군정대학 동만분교로 통합했다. 姚作起 主編, 『東北軍政大學吉林分校』, 遼寧民族出版社, 1994, 227쪽.

135)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金洪範, 『幹部履歷書』).

136)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박승규, 『幹部履歷書』).

보안간부훈련소에는 소련군 고문들이 배치되어 군사훈련을 담당했다. 1946년 9월 7일 현재 '경보병사단'(보안간부훈련소)에 파견된 소련군사고문들은 모두 179명이었고, 통역관 10명이 배치되어 있었다.<sup>137)</sup> 나남의 보안간부훈련소에는 사단 참모장 고문 후르스뜨노프 중좌, 사단 통신참모 고문 안또노프 중좌가 있었다. 소련군 고문은 연대·대대·중대급까지 파견되어 있었다. 제2소 제6연대의 소련군 고문은 총 30명이었고, 제6연대 공병대대의 소련군 고문은 총 3명(소좌·상급중위·중위 각 1명)으로 소좌는 대대 고문, 상급중위는 제1중대 고문, 중위는 제2중대 고문을 맡고 있었다.<sup>138)</sup>

각 보안간부훈련소에서는 훈련안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보안간부훈련소에 입소한 예비군관들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았다. 간부의 90% 이상이 농민출신으로 소학교 졸업자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공병과 같은 기술병종에 배속된 군관들은 '제공근'과 '삼각함수' 등 기본적인 수학개념조차 몰랐다. 이처럼 초창기 군관들은 정치이론 수준에 비해 수학·자연과학·지리 등의 수준이 매우 낮았다.<sup>139)</sup> 1946년 10월부터 보안간부훈련소는 소속 군관들에게 경례법과 제식훈련을 실시하였다.<sup>140)</sup> 그러나 보안간부훈련소는 군사학습보다 정치학습을 더 중시했다. 매일 첫 일과의 1~2시간은 반드시 정치학습을 진행하였다.<sup>141)</sup> 보안간부훈련소의 내무생활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양식과 교재는 소련군의 양식과 교재를 번역해서 사용하였다. 번역된 것은 내무·위병근무·훈련계획·각종 기술병과학에 관한 양식(내무근무표·훈련계획표·각종 통계표)과 교재(『병사·하사관용 공병교본』) 등이었다.<sup>142)</sup>

필자는 노획문서에서 보안간부훈련소의 정치교재를 발견하였다. 우리는 이 교재를 통해 보안간부훈련소에서 실시된 정치학습의 일단을 확인할 수

137) 『쉬띠꼬프 비망록』, 1946.9.7.

138) 주영복, 앞의 책, 72: 77: 82쪽.

139) 주영복, 앞의 책, 99쪽.

140) 주영복, 앞의 책, 77~79쪽.

141) 주영복, 앞의 책, 100쪽.

142) 주영복이 번역한 『병사·하사관용 공병교본』은 1949년 봄 민족보위성 출판국에서 1,200쪽 분량으로 발간되었다. 주영복, 앞의 책, 84~86: 111쪽.

있다. 교재는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 문화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제목은 『1947년도 정치교재』이다. 나남에 있던 제2보병사단에서 발행한 군관용 교재이다. 이 교재는 『1947년도 정치교재』 중 제8부로, 제목은 '조선인민군 군관들의 사상적 양태'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북조선로동당은 이미 1947년도에 보안간부훈련소를 '조선인민군'으로 불렀고, 간부들을 '군관'이라고 불렀다. 교재는 크게 두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제강 : 조선인민군 군관들의 사상적 양태」이고, 제2장은 「모스크바 부근에서 독일의 모멸」이다. 「조선인민군 군관들의 사상적 양태」는 서언, 교양사업에 대하여, 군관은 부하에 대하여 선생이며 교양지이다, 결론, 토론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주제는 소련군교본을 토대로 보안간부훈련소에서 재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 부근에서 독일의 모멸」은 1941년 10월부터 1942년 3월까지 전개된 독·소전을 방어전, 반격전, 진격전으로 나누고, 전쟁의 전개 과정과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sup>143)</sup> 이것은 소련군교본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재의 중심은 제1장에 실린 「조선인민군 군관들의 사상적 양태」이다. 교재는 먼저, 조선인민군의 근본과업을 “조선인민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조국의 국가적 이익을 진정으로 고수하는데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군관들에게는 “군사학리(學理)와 전투적 기술을 깊이 연구하며, 부대의 조직성을 견고히 하며, 전대원들의 정치적 경각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보안간부훈련소는 군관들의 임무에 대해 “군대가 우수한 현대 기술로 무장하였다 할지라도 만일 준비되지 못한 군관이 지도한다면 그는 좋은 군대가 될 수 없다”는 ‘프룬제’의 격언을 인용해 교육했다.<sup>144)</sup>

다음으로 보안간부훈련소는 정치학습에서 군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조했다. 교양사업의 정의에 대해 교재에서는 ‘미하일이와노위차 갈리니’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보안간부훈련소는 군관들에게 군사정치교양사업과

143)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78(保安幹部訓練所 第二所 文化部, 『1947年度 政治教材』 第八部), 이 교재의 주인은 ‘連絡小隊 戰士組 李鎮燮’이다.

144) 保安幹部訓練所 第二所 文化部, 앞의 책, 3~4쪽.

교양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양사업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교재는 1919년 소련에서 공민전쟁 당시 레닌의 발언을 인용해 “군관은 부하들에게 교양자가 되며, 자기 부대의 일반대원들을 훈련시키며 교양시킬 줄 알아야 한다”<sup>145)</sup>고 설명하고 있다.

교재에서는 조선인민군 군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군관은 조선인민의 대표자이며, 인민에게 복종하는 자이며, 조국을 옹호하며 자유독립을 고수할 위대한 책임을 진 정치사업자이며, 국가를 보수할 군사사업자이다.” 또한, 교재는 부하들을 교양시키기 위해 군관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군관들에게 요구된 것은 높은 정치적 각성, 부하들과의 긴밀한 유대, 규율방면에서 모범적 태도, 정직성, 엄격한 군사규율이다. 특히 교재에서는 군관들의 자세에 대한 ‘스탈린’과 ‘부로실로브’ 장군의 말을 인용해 설명하고 있다.<sup>146)</sup> 또한, 보안간부훈련소는 이미 군관들에게 군대의 군사규율을 교육하고 있었다. “상관이 악수를 청하기 전에 부하와 상관과의 악수를 하지 못하며, 공회석(公會席)에서 상관이 앉기 전에 부하가 앉지 못하며, 군관은 만일 상관에게 부의를 받아스면 그는 자기 직속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보안간부훈련소의 정치학습은 기본적으로 사상교양 사업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물론 군사훈련과 군사지식도 강조하고 있지만, 군관들에게 주로 요구된 것은 높은 사상적 각성이다. 또한, 보안간부훈련소의 정치학습은 소련군을 모델로 삼고 있다. 모든 정치학습의 사상적 근원은 스탈린, 프룬제, 미하일이와노위차 갈리니, 부로실로브 등 소련의 정치지도자와 장군들로부터 출발했다. 이에 대해 보안간부훈련소의 정치교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의 군관은 쏘베트군관들게 많이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 군관들은 아직도 자수양(自修養)사업을 적게 하며, 군관다운 기풍이 적음은 큰 유감이다.”<sup>147)</sup>

145) 保安幹部訓練所 第二所 文化部, 앞의 책, 4~6쪽.

146) 保安幹部訓練所 第二所 文化部, 앞의 책, 6~8쪽.

147) 保安幹部訓練所 第二所 文化部, 앞의 책, 6~8쪽.

## 5. 맺음말

해방직후 북한지역에 창설된 대표적인 무력양성기관은 평양학원, 북조선 중앙보안간부학교, 보안간부훈련소이다. 평양학원은 정규군 창설을 대비한 핵심군관양성기관이었다. 학원은 1946년 1월 3일 창설되었고, 소재지는 평남 진남포시 지장리로 밝혀졌다. 창설당시 학원은 정치반과 군사반으로 구성되었다가, 1946년 3월 항공반이 증설되었다. 학원의 창설과 학생선발은 철저히 항일연군과가 주도하였다. 학원운영과 훈련실무에 소련계가 일부 참여하기도 했지만, 항일연군과는 처음부터 평양학원을 자과의 확대재생산기반으로 기획했다. 1946년 6·7월 평양학원 정치반과 군사반이 다른 기관으로 통합되면서 학원은 정치군관, 통신군관, 항공군관, 여성정치간부, 대남 유격대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평양학원 제1기생은 1월 10일에 입학해 4월 29일에 졸업하였고, 제2기생은 5월 1일에 입학해 9월 16일에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은 대부분 해방직후 지방에 설치된 정치학원을 다녔거나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다 추천을 받아 입학했다. 졸업생들은 보안간부훈련소나 지방에 있던 교도대대·보안간부학교에 분대장급으로 배치되었다. 이들은 한국전쟁 직전까지 중대장급으로 진급했고, 인민군 고급군관으로 성장했다.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는 정규군 창설을 대비한 병종별 초급군관양성기관이었다. 중앙보안간부학교는 1946년 7월 8일 창설되었고, 소재지는 평남 용강군 성암면 대안리 대안전기공장 합숙시설로 밝혀졌다. 중앙보안간부학교의 창설과 운영에는 항일연군과·의용군계·소련계가 모두 참여하였다. 특히, 평양학원과 달리 3개 세력이 역할을 분담했다. 의용군계는 교장과 일부 교원직을 맡았고, 항일연군과는 정치·군사 부교장과 교무부장을 맡았으며, 소련계는 전술·기술병과와 대부분의 교원직을 맡았다. 제1기생은 1946년 10월 22일 입학해 1947년 10월 26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

은 대부분 북한출신으로 해방직후 지방 민청·보안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평양학원과 달리 학생 중 일부는 일본군 경력자였다. 졸업생들은 인민군 보병부대로 배치되었는데, 일부는 바로 소대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일부는 전사로 임명되었다. 이들은 전쟁 직전까지 소대장급으로 진급했다. 평양학원 졸업생들이 인민군 고급군관으로 육성된 데 비해, 중앙보안간부학교 졸업생들은 인민군 초급군관으로 육성되었다.

보안간부훈련소는 창설당시 보안대·경비대 대원양성기관이었다. 훈련소는 1946년 6월 초 평남 개천에 창설되었다. 훈련소의 정식명칭은 '보안간부훈련소'였고, 분소는 "보간제3분소, 강계보안3분소, 강계훈련소"로 불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안간부훈련소의 주요 지휘관은 항일연군파였다. 그러나 대원은 앞의 두 기관과 달리 조선의용군출신과 북한출신이 함께 충원되었다. 보안간부훈련소는 1946년 9~11월 제1단계 재편으로 대원양성기관을 넘어서 정규군 창설을 준비하는 보병부대로 전환하였다. 재편이후 부대편제는 사단급이었지만, 실제 인원은 연대급으로 확인되었다. 보안간부훈련소는 1947년 3월 제2차 재편을 통해 정규군 보병사단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1946년 전반기까지 평양학원은 군사·정치군관, 중앙보안간부학교는 병종별 초급군관, 보안간부훈련소는 병사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1946년 후반기에 들어 무력양성기관의 역할은 새롭게 설정되었다. 평양학원은 정치·통신·항공군관, 여성정치간부, 대남유격대원을 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1948년에 들어서 대남유격대원 양성임무는 강동정치학원으로, 항공군관 양성임무는 항공대대로, 통신군관 양성임무는 중앙보안간부학교로 이관하였다. 최종적으로 1949년 1월 평양학원은 '제2군관학교'로 완전히 개편되었고, 그 후에는 인민군 문화군관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문화군관학교'가 되었다. 중앙보안간부학교는 보병·포병·통신·군의·경리·공병군관 양성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했다. 그리고 1947년 10월 종합군관학교 규모로 확대되었고, 1948년 12월 '제1군관학교'로 개편되면서 완전한 '종합군

관학교'로 자리 잡았다. 보안간부훈련소는 1946년 후반기에 보병사단으로 전환되면서 군관들의 지휘·참모훈련과 병사 양성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11. 12. 1, 심사수정일 : 2012. 2. 10, 게재확정일 : 2012. 2. 21)

주제어 : 평양학원,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보안간부훈련소, 보안훈련소, 보안대, 철도경비대, 경비병사단,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조선인민군, 무력양성기관

<ABSTRACT>

##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s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Training Institutions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

Kim, Seon-ho

There were three military institutes established in North Korea just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 1) *Pyeongyang* Academy, 2) the North Korea's Central Constabulary Academy (NKCCA), 3) and the Security Officer Camp.

*Pyeongyang* Academy, established on January 3, 1946 in *Jijang-ri*, *Jinnampo* City, South *Pyeongan* Province prior to the other two institutes by North Branch of *Joseon* Communist Party, was designed to educate political and military officers for the new armed forces. *Kim Il-Sung* clique was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the academy. There were two training programs: political officers and military officers at the beginning of the academy. The program for political officers was assigned to the Central Party's School of North Korean Communist Party, and the other program was to NKCCA in June 1946. The academy was reorganized as an infantry company after June 1946.

The NKCCA for education of military officers for the new armed forces was established on July 8, 1946 in *Daean-ri*, *Seongam-myon*, *Yonggang-gun*, South *Pyeongan* Province. The major executive members of the NKCCA were *Kim Il-Sung* clique, and Soviet Union group was in charge of professional fields. Korean Volunteer Army Group gradually weakened. The NKCCA consisted of infantry units, signal units, and artillery units. After October 26, 1947, the NKCCA became a comprehensive military academy. The Soviet army set up the curriculum of the NKCCA which was

the same one as that of the Soviet Military Academy. The NKCCA was founded as an institute for training military officers, and it maintained their goal even after the reorganization in Dec. 1948.

Security Officer Camp (SOC) was established in *Gaechon*, South *Pyeongan* Province to train *Boandae* and security guard in early June 1946 and then, the first branch in *Sineuiju*, the second branch in *Jeongju*, and the third branch in *Ganggye* were followed. While SOC Basically reinforced the troops with young men in North Korea, the first and second branches were organized based on the troops who *Kang Geon* brought to North Korea. Between September and November in 1946, SOC was reorganized into an infantry division and included Railroad Guard in its division. SOC was reorganized to transfer the last guard mission in March 1947. Finally, the SOC was completely switched to an infantry division of a regular army. SOC modeled Soviet Army and Soviet Army's system for their education philosophy.

Key Words : *Pyeongyang* Academy, North Korea's Central Security Officer School, Security Officer Camp, *Boandae*, Railroad Guard, Small Infantry Division , Security Officer Training Headquarters,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 Armed Forces Training Institutions